

“주암·동복호 수계기금 영산강에 돌리지 말라”

보성·순천 등 환경부 운용규칙 개정 강력반발

주암호와 동복호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계 관리기금을 영산강 수질개선에 사용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광주시·전북도·전남도 등 8개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영산강·섬진강 수계지역 중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폭과 그 상류지역’에 ‘영산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 지역’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추가시켰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광주 효천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과 하수관 사업 등 영산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운영에도 수계 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적용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수계 관리기금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매월 수도 사용료에 ‘물이용 부담금’(t당 170원)을 함께 징수, 주암호·동복호·탑진호·수어호 등 폭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영산강·섬진강 수계 자문위원인 전남도의회 서옥기 도의원은 비롯해 곽태수(장흥), 선병진(보성), 오방록(화순), 서정진(순천), 정현완(광양) 등 시·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9일 보성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항의했다.

이들은 “주암호·탑진호·수어호 등 상수원의 물을 먹는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기금을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년부터 수계기금을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류지역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성군의회 선병진 의장은 “수계 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에 앞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했다”며 “향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지리산 사유화 규탄”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소속 주민 500여명이 20일 서울 대 정문 앞에서 지리산 사유화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지리산 학술림을 원래 주인인 구례군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안병호 합평군수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안병호 합평군수가 전남 22개 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

안병호 합평군수는 지난 17일 나주 농협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정치 아카데미’에서 순학구 민주당 대표로부터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잘 구현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합평군은 실버양봉단 등 저비용·고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성공적으로 발굴해 창조적 복지모델을 제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병호 합평군수는 “모든 군민이 중요로운 합평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순천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제 워크숍

23~24일 에코그라드 호텔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에 대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 워크숍을 23~24일 순천만과 시내 에코 그라드 호텔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인 원형 보전 성과 38.3km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는 순천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 전남도, 순천시,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전략을 마련, 내년에 신청해 오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등재를 성공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기후 보호와 자연 유산과의 관계에 대한 분야토의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외국 전문가 중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실사 책임자들도 끼어 있어 순천시는 이들로부터 세계유산 등지를 위한 다양한 조언도 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 전남도, 순천시,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한다.

워크숍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보성경찰 전국 최장 12년 무사고

보성경찰이 12년 무사고를 기록했다.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은 20일 ‘검강시계’ 12주년 대기록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는 전국 249개 경찰서 중 최장 검강시계를 유지한 것이다.

‘검강시계’는 경찰관의 공직비

무사고 일수를 수치화한 것이다.

노재호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신뢰를 기반으로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직내 존중문화 정착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객중심 친안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서편제 보성소리 듣길 만든다

편백나무 숲·생태하천·차밭

3개 코스, 29km 명품길 조성



많은 팬소리 명인들이 소리를 익히던 ‘득음정’.

보성군이 ‘슬로 시티’ 체험관광 일환으로 ‘서편제 보성소리 듣길(得音길)’을 조성한다.

보성군은 자전거를 타거나 두 발로 걸으며 건강도 쟁기고 지역 역사와 문화, 관광, 휴양자원을 느낄 수 있도록 3개 코스, 29km 구간을 명품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차(茶) 이해 및 삼립육 코스 ▲숲속 등산코스 ▲하천생태·편안한 코스로 나눠 보성읍에서 회천면 정응민 생가 등을 종점으로 주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농로와 산책로, 등산로, 마을길, 임도 등을 그대로 활용하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코스 안내판 및 해설판, 숲속에서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구간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보성 버스터미널과 보성역, 보성 5일시장, 동윤천 생태공원, 편백숲길, 활성산성, 한국자연박물관, 차밭 등 보성의 주요 명소와 연계되어 보성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건강에 좋은 편백나무 숲길과 생태하천, 차밭 등 자연그대로인 생태 환경을 느끼며 걸을 수 있고 차와 소리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명품 거리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건강에 좋은 편백나무 숲길과 생태하천, 차밭 등 자연그대로인 생태 환경을 느끼며 걸을 수 있고 차와 소리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명품 거리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영광원전 ‘해수사용 4년’ 불복 심사청구

영광군 기각 요구안 제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군의 ‘공유수면·해수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해 감사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구한 심사청구를 해 귀주가 주목된다.

영광군은 최근 한수원의 심사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를 통해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심사에 앞서 관할 자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한수원 산하 영광원자력본부(영광원전)는 지난 4월 원전 방류제 일대 바다 6만8000여m²와 6개 원전 사용 액정 물량인 연간 115억t의 바닷물을 15년 이상 사용하겠다고 영광군에 신청하면서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유수면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5~30년까지 장기허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영광원전의 장기 허가 추진배경에는 매년 해수 점사용 연장허가를 받는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대인동삼일부동산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주차장용지·이주주택지·협의주택지

전국 혁신도시 투자전문

솔로몬공인증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3153-4242

010-2609-5888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동명공인증개사

【수익성 높은상가 매매】

• 서구 상가건물 5800㎡

매매가 60억원(용자 34억원)

직영운영시 연간순수익 8억원(공동투자 운영가)

• 서구 상무지구 상가대지 230㎡ 건물2300㎡

보증금 3억원, 월 3300만원 매매가 45억원

• 광산구 첨단지구 상가대지 180㎡ 건물 790㎡ 보증금 4억

월 1,250만원(용자 7억5천만원)매매가 21억원

• 광산구 첨단지구 상가대지 963㎡ 건물 1000㎡

보증금 1억5천원, 월 930만원(용자 2억원)매매가 17억원

최근 신축 건물 입점 점포 성업중

• 광산구 첨단지구 상가대지 482㎡ 건물 911㎡ 보증금 3억

월 800만원 매매가 14억5천만원 입점점포로 성업중

【고시원매매】

• 용봉동 대지 310㎡ 건물618㎡(65실)

월수입 1,200만원 용자 3억원 매매가 7억7천만원

【모델매매】

• 대지 561㎡ 건물975㎡(33실) 성업중 최고 상권 및 독점상권 매매가 19억원

【토지매매】

• 광산구 수원지구 지연녹지지역 신설도로 8차선 부근

- 대지 : 15,000㎡ 매매 39억원(물류센터 등 적합)

- 전 : 5,140㎡ 매매 15억천만원(물류센터 등 적합)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중앙상업지역 760㎡ 매매가 46억원

• 서구 농성동 교차로 부근 준주거지역 8차선 대로변

- 대지 : 2,221㎡ 매매가 25억원(병원, 교회 등 적합)

【부동산구함】

• 웨딩홀 및 상가건물 등 부동산구함

대표전화 010-3180-9211

나라공인증개사

▣ 펜션릴 매도

전북순창군 북하면 대방리 펜션릴 2007년 준공

• 대 : 1080㎡, 임야 : 1337㎡

케이블로 23평, 카페로 10평, 17개방 관리동, 1층 치도형

직주+장원비+수련한경비+수련원기금+도로적설 여수대지밀집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9천299만원(192평) 건물